

안티케 소재 엘렉트라 비교 고찰

-그리스 3대 비극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희열*

목 차

0. 머리말
1. 아설로스의 「오레스티」에 나타난 엘렉트라
2.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
3. 오이리피데스의 「엘렉트라」

0. 머리말

그리스 아트리덴 가문의 이야기는 바로 엘렉트라 소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어떠한 배경에서 아트리덴 가문의 비극은 대를 이으면서 전개되는지가 엘렉트라라는 인물을 밝히는데 전제 조건이 되며, 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수 천년동안 세계문학에서 작품 소재로 쓰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형성될 수 있다.

아트리덴 가문의 호주는 제우스의 아들 탄탈로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탄탈로스는 신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자 오만해져서 자신의 아들 펠롭스를 신들의 식사 요릿감으로 쓰는 경거망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신들은 펠롭스를 다시 소생시키고 탄탈로스 가문은 대대로 재앙과 근친살해의 저주가 뒤따르게 된다. 다시 소생한 펠롭스는 티에스트와 아트로이스란 아들을 두었다. 그런데 티에스트가 아트로이스의 아내를 납치하고 아르고스 통치권의 상징인 금양피를 훔치고 달아나자 형제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나중에 아트로이스는 티에스트에게 화친의 뜻을 밝히고 자기 나라로 그의 가족을 초대한다. 아트로이스는 초

*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교수

대되어 온 티에스트의 아들들을 가두고는 그들을 타살하여 요리로 만들어서 그 아버지의 식탁에 내놓는다. 이 때 죽음을 면한 것은 오직 티에스트의 막내 아들 에기스트였다.

구전되어 오는 대다수 이야기본에 따르면 아가멤논과 메네라오스가 아트로이스의 아들들이며, 이 족보는 유럽 작가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아가멤논과 메네라오스는 스파르타 왕 틴다로스의 딸들과 혼인하게 되는데, 메네라오스는 헬레나와 아가멤논은 클리템네스트라와 결혼한다. 그런데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헬레나를 트로이로 유괴해가자 모든 그리스가 명장 군주인 아가멤논의 지휘 아래 복수전을 펼치게 된다. 그리스 군대의 출항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아가멤논은 예언자 칼카스의 조언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신의 딸 이피게니에를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제물로 바치게 된다. 한편 아가멤논이 없는 사이 에기스트는 이피게니에 희생으로 크게 상심한 클리템네스트라의 사랑을 얻는다. 그들은 아가멤논이 귀향하자 살해하여 버린다. 이 때 운신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클리템네스트라는 아들 오레스트를 스트로피오스에게로 보내 버린다.

이와 같은 아트리텐 가문의 저주와 죄악은 대를 이어가고 있었고,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에는 아가멤논의 딸들이 오레스트의 복수에 관여하거나 가담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리스 영웅서사시 호머의 『오딧세이』에서도 구전처럼 아가멤논 가문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즉 에기스트와 클리템네스트라의 결합, 에기스트 단독 범행으로 이뤄진 아가멤논 살해, 오레스트가 두 사람에게 행한 복수등이 이야기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엘렉트라라는 이름은 이야기에서 빠져 있다¹⁾. 그러다가 엘렉트라라 역할과 존재가 크게 부각된 것은 그리스 비극작가들에 의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포클레스의 비극 『엘렉트라』로 인해서 엘렉트라 이야기가 서양문학에서 주목받는 문학적 소재가 된 것이다.

이 논문은 그리스와 현대 서양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안티케 소재 엘렉트라 비교 분석의 일환으로 그 첫 번째 연구 작업이며, 이어서 "안티케 소재 엘렉트라 비교 분석- 현대 서양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가 두 번째 연구 작업이 될 것이다.

- 1) Hellmut Flashar, Notizen zur Elektra, in: Sophokles, Elektra (Übers. v. Wolfgang Schadewaldt u. hrg. v. Hellmut Flashar, Frankfurt/M. 1994, 117쪽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 소포클레스, 오이리피데스, 아설로스의 엘렉트라와 오레스티 신화는 서로 흥미롭게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 고찰은 맨 먼저 아우구스트 빌헬름 쉴레겔에 의해서 그의 유명한 1802/3년 베를린 강의에서 이뤄졌으며, 여기서 쉴레겔은 오이리피데스의 「엘렉트라」의 작품가치를 가장 과소 평가하였고²⁾, 반면에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는 높이 평가하였다. 그 이후 소포클레스와 오이리피데스의 비극은 끊임없는 비교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후대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오이리피데스의 「엘렉트라」 작품 평가가 높아지면서 두 작가의 문학적 평가가 균형있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안티케 소재 엘렉트라가 그리스 3대 비극작가에 의해서 어떻게 다르게 수용되어 작품화되고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1. 아설로스의 「오레스티」에 나타난 엘렉트라

아설로스의 「오레스티」는 「아가멤논」, 「제물을 나르는 여인들」과 「복수의 여신들」로 이루어진 비극 3부작이다³⁾. 이 작품은 기원 전 458년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상연되었고, 아설로스는 이 작품에서 두 세대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 「아가멤논」에서는 아가멤논의 귀향과 타살을 다루고 있으며, 「제물을 나르는 여인들」에선 클리템네스트라와 에기스트에게 가하는 오레스티의 복수가 그 주요 내용이며, 바로 이 이야기에서 엘렉트라가 등장한다. 마지막 「복수의 여신들」에선 오레스티의 모친살해의 결과와 그의 사면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설로스의 작품에서는 엘렉트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 인물로 그

2) Euripides 「Elektra」 ist für Schlegel „ein seltenes Beispiel poetischer Unvernunft“, „Pfuscherei“, „vielleicht sein allerschlechtestes Stück“, während Schlegel in dem Drama des Sophokles die „wunderwürdige Anordnung“, und die „himmlische Heiterkeit“, rühmt. In: Sophokles, Elektra, 101쪽.

3) Aischylos, Die Orestie (übers. v. Oskar Werner mit einer Einführung und Erläuterungen v. Bernhard Zimmermann), München 1990. 「Die Orestie」 von Aischylos besteht aus drei Teilen: 「Agamemnon」, 「Weihgußträgerinnen oder Choephoren」 und 「Eumeniden」.

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킬로스의 엘렉트라를 고찰하는 이유는 아킬로스 이전까지는 아가멤논의 어느 딸도 오레스트의 복수에 관여하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아킬로스가 최초로 엘렉트라를 복수에 관여하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포클레스가 엘렉트라를 비극적 주인공으로 형상화한 이후 오늘날까지 엘렉트라는 그 역할로 보건대 보조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여러 작가의 작품에서 작품 주인공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아가멤논」의 장소는 아르고스에 있는 아트리덴 왕가의 궁성 앞이고, 이 작품에선 아가멤논이 아트로이스의 맏아들이고, 클리템네스트라는 구전대로 틴다로스의 딸이며, 에기스트는 티에스트의 아들이므로, 아가멤논과는 사촌간이다. 그 줄거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맨 처음 서극에서 보초가 아가멤논의 승전보와 귀향소식을 클리템네스트라에게 전한다. 이어서 합창은 10년 전 아가멤논 출전에 얽힌 사건들, 즉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에 손님으로 초대되었는데, 헬레나를 유괴하므로써 주병국의 친절을 훼손한 점,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산 아가멤논의 군대가 아울리스에서 출항을 못하게 되자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니에를 재물로 바침으로써 여신과 화해하게 된 점 등을 노래한다.

드디어 10년 만에 아가멤논이 귀향하여 승전 기도를 바치고 나서 클리템네스트라의 각별한 청을 받아들여 붉은 색 카펫을 밟고 궁성으로 들어간다. 클리템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이 전리품으로 나누어 받은 트로이 공주 카산드라⁴⁾를 마중하러 나간다. 예언자이기도 한 카산드라는 선뜻 마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고, 클리템네스트라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분격한다. 카산드라는 그녀 자신의 죽음, 아트리덴 가문에 드리운 과거의 근친살해, 아가멤논의 암살과 오레스트의 복수등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한다(AA, 174-182).⁵⁾ 그 중에서도 아가멤논이 그의 아내에 의해서 욕실로 안내된 후 살해되는데, 먼저 클리템네스트라가 어망과 같은 것을 그에게 뒤집어씌우고, 그녀 곁에는 조력자가 서

4) 카산드라는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딸이며, 파리스 왕자의 누이이다. 그녀는 예언자이기도 한데, 그녀가 아폴로신의 청혼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벌로 그녀의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도록 했다. Bernhard Zimmermann, Erläuterungen, in: Die Orestie, 316쪽 참조

5) AA ist Abkürzung 「Agammennon」. 이하 본문에서 축약형으로 쓰임.

있음을 또렷하게 예언한다. 이어서 궁성안으로 들어간 아가멤논이 치명적 공격을 두 번 받는다: “다시 두 번째 타격이 나를 내려치는구나”(AA, 182). 반면 카산드라는 조용히 살해된다. 궁성 문이 열리고, 클리템네스트라는 아가멤논과 카산드라의 시체를 내보이면서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그녀의 살해 동기는 아올리스에서 이피게니아가 제물로 바쳐진 것, 그리고 트로이 출정 전 아가멤논이 크리제의 딸을 사랑한 것과 출정 후에는 카산드라를 사랑했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에기스트의 역할은 클리템네스트라로 하여금 남편에 대한 미움을 증폭시키고, 암살하도록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아가멤논 살해의 공범자이며, 왕비의 연인이자 나중에는 아가멤논을 대신해서 왕비와 더불어 공동 통치자가 된다. 에기스트는 아내에 의해서 빚어진 남편 암살을 아가멤논 아버지가 진 빚을 그 아들이 대신 마땅히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AA, 189-191). 이에 대해서 합창대장이 에기스트에게 머지 않아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트가 귀향해서 복수할 것임을 예고한다. 오레스트는 클리템네스트라가 남편 암살 계획을 세우면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포키스에 사는 스트로피오스에게 그 양육을 일찍이 맡겼다. 예정대로 남편을 제거하고는 마지막 장면에서 클리템네스트라가 에기스트와 더불어 아르고스를 공동 통치하자고 제안한다(AA, 192). 이 「아가멤논」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카산드라가 과거에 있었던 아트리덴 가문의 근친살육, 앞으로 닥칠 아가멤논의 암살 장면과 오레스트의 복수,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실제 장면을 보듯 예언하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제물을 나르는 여인들」에선 엘렉트라와 클리템네스트라가 직접 마주치는 일이 없고, 엘렉트라는 오레스트의 복수를 돕는 조력자로 등장한다. 그 무대배경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르고스이며, 아가멤논의 무덤가에서 진행된다. 이 작품은 오레스트가 필라데스와 함께 귀향해서 아가멤논 무덤가에 자신의 곱슬머리를 바치면서⁶⁾ 제우신에게도 아버지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

6) 옛 그리스의 성인 의식에서는 행복한 청년시대를 위한 감사의 표시로서 아폴로 신이나 고향의 강물신에게 곱슬머리를 봉정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오레스트가 아버지 무덤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식적

도록 도와달라고 기도(AC, 198)⁷⁾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여성 합창대가 출현하자 옆으로 비켜서는데, 그 합창대 가운데 엘렉트라가 서 있음을 알아 본다. 이 합창대가 아뢰기를 클리템네스트라가 악몽에 시달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가멤논 무덤에 제물을 봉납품으로서 가져가도록 보냈다 한다⁸⁾. 엘렉트라는 물론 어머니의 의도와는 달리 오레스트의 귀향과 아버지의 복수를 오레스트가 하도록 빌기 위해서 이 곳에 온 것이다. 특히 합창대장이 엘렉트라의 의지를 강화시킨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렴! 그가 살인에는 살인으로 되잖는다”(AC, 201). 이에 힘을 얻은 엘렉트라는 아버지 묘에서 기도를 올린다.

아버지! 저와 사랑하는 오레스트를 가련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의 암살에 협조한 에기스트를 새 남편으로 맞아들인 어머니,
그녀에 의해서 팔려나간 우리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 하녀와 다를 바 없고,
상속자인 오레스트는 추방되었어요.(AC, 201)

기도를 마치고 제물을 봉납한 후 엘렉트라는 오레스트의 곱슬머리와 발자국의 흔적을 찾아내고는 그의 귀환을 확신한다.

내가 이 곳에서 곱슬머리를 보는데
그것이 여느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
계다가 여기 두 사람, 그와 그의 동행인의 발자국이 아직 남아 있다.
간과하기 쉬운데
그의 발뒤꿈치와 발바닥의 흔적이
나의 것과 꼭 일치한다.(AC, 203)

그러자 오레스트는 모습을 드러내고 오누이 상봉이 드라마 서두에서

상징이자 자신의 소원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ernhard Zimmermann, Erläuterungen, in: Die Orestie, 317쪽 참조

7) AC ist Abkürzung 「Choephoren」.

8) 트로이에서 데려온 노예들이 클리템네스트라의 명을 받고 아가멤논의 무덤으로 제물(포도주, 우유와 꿀)을 가져간다는 데에서 「제물을 나르는 여인들」이라는 작품명이 생겨난 것이다.

이뤄진다(AC, 204). 오레스트는 재회의 기쁨과 그들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고 제우스신에게 기도를 올린 후 아폴로신의 신탁을 그녀에게 보고하는데, 그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AC, 205). 그리고 아폴로의 신탁은 바로 그의 의지와도 부합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살해된 아버지에게 대한 고통을 공유하게 되고, 엘렉트라라는 오레스트로 하여금 그의 계획을 실현하도록 협력한다. 이 비극 작품에서는 합창이 오레스트와 엘렉트라를 지지한다.

이어서 클리템네스트라와 에기스트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계책을 꾸미는데, 그것은 오레스트가 이방인으로 위장하고는 필라테스와 함께 자신의 거짓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궁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AC, 214). 계획은 성공하고, 오레스트는 클리템네스트라에게 자신은 포키스 지역 상인이며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스트로피오스의 소식을 전하다면서 그의 시신의 재가 담긴 단지를 내보인다(AC, 217). 클리템네스트라는 이 소식을 전하여준 이들에게 용서하게 대접할 것을 명한 후 오레스트의 유모를 통해서 에기스트를 불러 오게 한다. 닥아오는 위협에 대해서는 합창대가 노래하면서 오레스트를 지지한다. 이어 합창대장이 오레스트의 유모에게 클리템네스트라의 지시와는 달리 모든 무기와 경호원을 버리고 혼자 에기스트가 궁성으로 입성하도록 전달케 한다(AC, 220).

이내 에기스트는 오레스트의 사망소식을 직접 듣고 싶은 조바심을 내면서 경호원 없이 궁성으로 혼자 들어온다(AC, 223). 이어서 에기스트의 고통스러운 외마디 소리가 궁성안에 울려 퍼지고, 이 소식은 즉시 클리템네스트라에게 전달된다. 그 때 오레스트와 필라테스가 에기스트의 시신을 가지고 그녀 앞에 나타난다. 클리템네스트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의 어머니인 점을 강조한다.

아들아, 잠깐만 멈추렴!
너는 내 품안에서 잠들었고,
이빨없는 입으로 달콤한 젖을 빨아대던 너
이 어미를 경외하라! (AC, 225)

그래서 오레스트가 잠시 계획을 망설이자 필라데스가 단 한번 이 작품에서 침묵을 깨고 그에게 아폴로의 신탁을 상기시킨다(AC, 225). 결국 오레스트는 어머니의 저주를 들으면서 그녀를 살해하고, 이로써 정의가 승리했음을 합창이 노래한다. 모든 범행이 끝난 후 오레스트는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하도록 신탁으로 명한 아폴로신에게 가기 위해서 델피 신전으로 간다. 결국 합창은 아트리텐 가문의 재앙과 잔인무도함의 결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그 대답은 3부작의 마지막 작품 「복수의 여신들」에서 오레스트가 아테네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광기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그 답이 주어진다.

이 마지막 이야기 「복수의 여신들」에선 그 여신들에겐 쫓긴 오레스트가 델피의 아폴로 신전에 도피처를 구하게 된다. 결국 오레스트는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아테나 여신이 재판장이 되고, 피고는 오레스트, 그의 변호인은 아폴로신, 원고는 복수의 여신들이다. 오레스트의 혐의는 칼로 모친을 살해한 죄이며, 아폴로신은 법정에서 오레스트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신탁에 따라 복수를 한 것이고, 아울러 클리템네스트라가 어떻게 남편을 살해하였는가를 상기시킨다.

아가멤논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견우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정한 말로 그를 맞이하였지
(그를 맞이하고는 몸을 씻도록 욕조로 안내하였지.)
그가 몸을 씻고 있을 때
그녀는 계획에 따라 그의 머리에 보자기를 씌우고
칭칭 감아서는 그를 살해하였다. (AE, 254)⁹⁾

결국 최종 투표결과는 유죄와 무죄가 동수로 나오고(AE, 258), 재판장인 아테나 여신이 오레스트의 편을 지지하여서 오레스트에게 무죄가 선고된다. 대신 복수의 여신들에게는 아테나 여신이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들이 '복수의 여신들'이 아니라 '자비로운 여신들'로¹⁰⁾ 불리우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AE, 266). 이리하여 피고와

9) AE ist Abkürzung „Die Eumeniden..“

원고 모두에게 흡족한 지혜로운 결정을 아테나 여신이 내린다. 특히 아설로스의 작품에서 오레스트의 판결과 관련해서 기원 전 5세기에 그와 같은 민주적 법 집행과 결정을 묘사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¹¹⁾. 또 한편으로는 아테네 법정이 신들로부터 소명을 부여받아 왕실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은 전형적 안티케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¹²⁾.

아가멤논의 가족 관계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과 왕비 클리템네스트라 사이에 세 자녀, 즉 이피게네아, 엘렉트라, 오레스트를 두고 있음.
클리템네스트라의 아가멤논을 살해 동기	아가멤논에 의해서 이피게네아가 제물로 바쳐진 점. 아가멤논이 카산드라를 비롯한 다른 여인을 사랑한 점.
아가멤논을 살해한 시점, 방법과 장소	아가멤논은 10년만의 승전 귀향 직후 아르고스에 있는 그의 궁성안 욕실에서 클리템네스트라가 친을 그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에기스트가 그를 두 번 내리쳐서 암살됨.
에기스트의 역할	아가멤논 암살 공범자, 클리템네스트라의 연인이자 공동 범치자
오레스트 피검	클리템네스트라가 장애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어린 오레스트를 포키스에 사는 스트로피오스에게 보내서 그 곳에서 양육됨.
오레스트 귀향 동행인	그의 죽마고우 필라테스와 둘이서만 귀향.
오레스트와 엘렉트라의 재회 징표	아가멤논 무덤가에 바쳐진 오레스트의 곰솔머리와 그의 발자국.
오레스트의 복수 계획과 실행	오레스트가 자신을 이방인으로 가장하여 필라테스와 함께 궁성안으로 들어가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스트로피오스의 소식을 전한다면서 그의 시신의 계가 담긴 항아리를 내보임.
오레스트의 복수 순서	에기스트를 먼저 살해하고 클리템네스트라를 살해함.
협력자	필라테스, 엘렉트라
아폴로신의 신탁	오레스트는 아폴로신의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신탁은 바로 자신의 의도와 합치됨.

10) '복수의 여신들'은 Erinnyen이고 '자비로운 여신들'은 Eumeniden이라 불리우지만, 안티케 문학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서구문학에서 위 두 낱말을 모두 '복수의 여신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11) Bernhard Zimmermann, Einführung, in: Die Orestie, 13쪽 참조

12) 전형적 안티케 문화의 단면이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신 중심의 세계관 또는 인간관, 즉 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고, 특히 그리스 비극 작품에서는 왕족 출신의 주인공들이 신들이 정해 놓은 비극적 운명을 감수할 수 밖에 없도록 묘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대두되어 보편화된 것은 중세 이후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뤄진 일이다.

복수의 여신	오레스트는 신탁이 명한 바대로 복수를 감행하고 나서 모친 살해로 인해서 복수의 여신들의 추적을 받음.
모친 살해죄	결국 오레스트는 모친살해죄로 아크로폴리스 최고법정에 선다. 그의 변호사는 아폴로신, 원고는 복수의 여신들, 재판장은 아테나 여신인데, 표결 결과 유무죄 동수로 나왔으나,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음.
엘렉트라의 신분과 역할	엘렉트라는 공주이며 미혼. 아버지 암살에 대한 용정이 오레스트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의 복수를 적극 후원함. 엘렉트라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인물로 그려지고 있음.
필라데스의 역할	오레스트의 친구이자 가장 큰 협력자, 드라마에서 단 한번 침묵을 깨고 오레스트에게 복수 감행 재촉함.
특징	예언자로서 카산드라의 역할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음, 예를 들면 그녀가 과거 아트리엔 가문의 근친살해, 앞으로 있을 아가멤논의 암살, 오레스트의 복수, 자신의 죽음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함. 오레스트의 판결과 관련하여 기원 전 5세기에 민주적 법 집행과 결정을 묘사했다는 점 (아크로폴리스 최고법정과 아테나 여신의 결정 사항)

위 요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실로스의 엘렉트라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는 그 발표 시기가 그의 대다수 작품과 마찬가지로 불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연구가에 의하면 대략 그 시기가 422년에서 413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작품은 그리스 비극의 구조를 전형적으로 지니고 있는 5막극이며, 최초로 엘렉트라가 작품의 중심 인물이 되고 있다.

이 비극 작품은 아실로스의 드라마처럼 오레스트의 귀향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며, 필라데스와 나이든 하인이 오레스트를 동행하여 미케네로 함께 귀향한다(SE, 11)¹³⁾. 이 작품에서 나이든 하인, 즉 스트로피오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¹⁴⁾, 미케네에 당도하자 오레스트와 필라

13) SE ist Abkürzung 「Elektra」 von Sophokles.

14) 이 나이든 하인은 바로 오레스트를 키운 스트로피오스다. 아가멤논이 살해되었을 때, 엘렉트라가 오레스트를 궁성에서 빼내어 아버지의 옛 신하 스트로피오스

데스에게 복수를 감행할 적절한 시간임을 알리면서 그 일을 서두르도록 재촉한다(SE, 11). 이에 따라 오레스트가 그 계획을 세우고 스트로피오스가 오레스트의 거짓 죽음을 클리템네스트라에게 최초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아킬로스의 경우에는 이 속임수가 작품 중간에 나오는데 반해서, 소포클레스의 경우에는 작품 서두에서 오레스트가 직접 그 계획을 스트로피오스에게 얘기한다.

가서 소식을 전하고 맹세하십시오.
오레스트가 피토에서 경주시합을 하다가
마차에 깔리는 참혹한 운명을 겪으며
죽었다고 말합니다.(SE, 13)

이런 계획과 오레스트의 생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엘렉트라는 오랜 시간동안 끝없는 고통과 절망속에 지낸다. 이 고통은 그녀의 비참한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녀의 내면적 외로움이자 일관되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응징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난 낮이나 밤이나 수그러들지 않고
늘상 피어오르는 이 고통들을 본다.
나를 낳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적대적으로 변하여 버린 곳
이 곳 나의 집에서 난
내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고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에 의해서 난 마치 억류된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SE, 21)

엘렉트라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와 그녀의 정부 에기스트에 의해서 도끼로 살해된 것을 애통해 하고 그로 인해서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냉대를 받고, 에기스트의 미움을 산다. 이러한 분위기 속

에게 그의 양육을 맡겼고, 스트로피오스는 이제 오레스트의 복수를 돕기 위해서 그와 함께 미케네에 당도한 것이다. 또 구전에 따르면 스트로피오스는 필라데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레스트와 필라데스는 죽마고우로서 생사를 같이 하기에 이른다. 소포클레스와 오이리피데스의 작품에선 피라데스가 아무 말없이 오레스트를 돕고, 작품 전체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도 하지 않는다. 반면 아킬로스의 작품에선 딱 한번 입을 여는데, 그것은 오레스트에게 아폴로 신탁을 상기시킬 때였다.

에서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언젠가 오레스트가 귀향하여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지만 에기스트의 위협이 가까이 닥친 그녀의 실제 현실은 그런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난 늘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 줄 해방자로서
오레스트를 기다리면서
불행한 난 몰락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에기스트는
나의 모든 희망들을 파괴하였고
또 이제 뉘가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SE, 22)

한편 엘렉트라와는 달리 그녀의 여동생 크리조테미스는 어머니와 에기스트에게 타협하면서 잘 지낸다. 크리조테미스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협적으로 처신하는 점을 엘렉트라는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러나 크리조테미스는 두 가지 점에서 엘렉트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하나는 엘렉트라가 계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그녀를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릴 것이라는 점이다.

언니가 통한을 그만두지 않으면
햇빛도 전혀 볼 수 없는 곳으로 언니를 보내버리려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 이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살아 있으면서도 무덤같은 방에서 언니는
그들의 악덕이나 노래하고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할 때 저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지 말
구요.
지금이 바로 사려깊게 처신해야 할 시점이에요.(SE, 26)

또 다른 보고는 제 3막 전체 내용으로 크리조테미스와 엘렉트라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크리조테미스는 악몽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가멤논의 무덤에 제물을 가져갔다 오레스트의 곱슬머리를 보고는 그가 살아 있음을 엘렉트라에게 전한다: “오레스트가 왔어요”(SE, 48). 이와 같은 크리조테미스의 자세에서 보면 두 자매가 극렬하게 대립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임을 보

여주고 있다. 이 크리조테미스는 아설로스와 오이리피데스의 작품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는 엘렉트라와 반대되는 성품을 지닌 자매로 그려지고 있는데, 소포클레스의 여러 다른 작품에서 자매들의 대립적 성품과 운명이 그려지고 있듯이¹⁵⁾, 그의 『엘렉트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자매의 대립적이면서도 간헐적 우호관계가 돋보이고 있다.

곱슬머리 모티브는 아설로스 작품에서는 작품 서두에서 오레스트 생존에 대한 중요한 징표로 작용하지만 소포클레스의 경우에는 크리조테미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오레스트의 생존 징표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엘렉트라로 하여금 오레스트를 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크리조테미스의 오레스트 생존 추정 소식이 있기 전에 엘렉트라는 스트로피오스가 오레스트의 거짓 죽음을 장황하게 그럴 듯이 어머니에게 보고하는 이야기를 곁에서 함께 들었기 때문에 크리조테미스의 말은 신빙성을 잃는다. 바로 이것은 소포클레스가 아설로스와는 다르게 오레스트의 곱슬머리 모티브를 변형한 것이다.

또 신탁 모티브도 두 작가가 전혀 다르게 변형한다. 아설로스와는 달리 소포클레스 작품에서는 신들의 명령이나 신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오레스트가 신의 권위나 신탁에 순종할 필요없이 자유로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¹⁶⁾. 이런 점은 전통적 그리스 비극의 특성이 신들과 그들의 신탁에 의해서 인간 운명이 결정되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소포클레스의 경우에는 신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보다는 인간적 운명이 돋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엘렉트라가 제 1막에서 아버지 아가멤논의 죽음에 대한 복수, 즉 아내에 의한 남편살해죄와 에기스트에 의한 친족 살해죄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복수의 여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SE, 15)과 제 2막에서 클리템네스트라가 엘렉트라와 긴 말다툼을 벌인 후 아폴로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녀가 모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15) 예를 들면,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자매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대립적 삶의 자세를 들 수 있다.

16) 아설로스의 경우에는 아가멤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오레스트가 하지 않으면 큰 벌이 내릴 것이라는 아폴로의 신탁에 따라 오레스트가 에기스트와 그의 어머니에게 복수를 한다. 따라서 오레스트의 복수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성격이 강하다.

달라고 기원하는 점이다(SE, 36). 이와 같은 줄거리 구성은 아설로스의 경우와는 정반대이다¹⁷⁾.

또 이 작품에서는 아설로스와는 달리 클리템네스트라와 엘렉트라의 격렬한 말싸움을 넣고 있는데, 클리템네스트라가 남편을 살해한 것은 큰 딸 이피게니에를 아가멤논이 희생시킨 것 때문에 비롯된 일임을 엘렉트라에게 상기시킨다. 반면에 엘렉트라는 이피게니에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아버지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가 이피게니에 희생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정을 감추고 있다고 공박한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암살했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어떤 말도 이보다 더 파렴치할 수 있을까요? ...
 어머니는 정의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지요.
 아니, 지금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악한 남자의 꾀에 빠져서 행한 일일 뿐이에요.(SE, 33)

클리템네스트라가 엘렉트라와 말다툼을 한 다음 아폴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스트로피오스가 오레스트의 거짓 죽음을 알리러 온다¹⁸⁾. 그는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오레스트가 델피에서 마차 경주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한다(SE, 39-42). 이 소식을 들은 클리템네스트라는 비로서 모든 근심이 해결된 듯 승리에 차서 궁성 안으로 들어간다.

지금 오늘로 난
 엘렉트라와 오레스트에 대한 두려움에서 풀려난다.
 내 집에 나와 함께 사는 엘렉트라는
 내 삶의 생기를 늘 빨아들이기 때문에
 내겐 훨씬 큰 두통거리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우리의 날을 보내게 되겠구나!(SE, 43)

17) 아설로스의 경우에는, 오레스트가 아폴로신의 신탁에 따라 어머니에게 복수를 감행하고, 그 후 모친살해죄로 인해서 복수의 여신들의 박해를 받는다.

18) 아설로스의 작품에서는 오레스트 자신이 직접 짙막하게 그의 죽음을 클리템네스트라에게 알린다.

반면 곁에서 그 소식을 함께 들은 엘렉트라라는 몹시 절망하면서 차라리 희망없는 삶보다는 누군가가 그녀를 죽게 하여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SE, 45). 엘렉트라라는 절망속에서도 크리조테미스가 오레스트 생존 소식을 보고하는 우호적 태도를 보이자,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함께 아버지 복수를 하자고 권유해보기도 한다(Se, 51). 그러나 크리조테미스는 엘렉트라를 통해서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잘 안다. 특히 순간적 현실에 적응이 빠른 그녀는 당연히 엘렉트라의 청을 거절한다(SE, 56). 그러다가 제 4막에서 오레스트와 필라테스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오레스트의 시신을 태운 재를 전달하기 위해서 클리템네스트라와 에기스트를 알현하러 왔다고 자신들을 소개하기에 이른다. 그때 오레스트가 엘렉트라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비참한 궁정 생활과 거저 사망소식인 줄도 모르고 그녀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오레스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힌다.

여기 아버지와 꼭 닮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어떤지를 알아내 보십시오!(SE, 65)

이제 엘렉트라라는 재회의 기쁨과 안도감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는 오레스트가 궁성안에서 클리템네스트라를 먼저 살해하고, 이어서 오레스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밖에서 궁성으로 들어오는 에기스트를 살해하게 된다. 이것은 엘렉트라의 소망대로 오레스트가 망설임없이 즉각적으로 행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과거 아가멤논의 살해되었던 장소로 에기스트를 데리고 가서 엘렉트라 앞에서 그 대가를 치루게 한다. 이 복수 장면은 아설로스과 오이리피데스의 작품에 묘사된 상황과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에기스트와 클리템네스트라가 다른 두 작가의 작품에서 보다 훨씬 사악하고 부정적인 인물들로 그려져 있다. 또 그들 두 작가의 작품에서는 오레스트의 복수배경이 전혀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비해서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는 그 복수배경이 특히 엘렉트라의 비참하고 박해받는 궁정생활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로써 소포클레스는 오레스트의 복수 배경의 필연성 또는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 마지막 장면인 합창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엘렉트라의 시련과 고통, 하녀처럼 취급되어 살아온 궁정 생활, 그리고 가장 힘들게 되찾은 자유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바로 엘렉트라가 중심 인물임을 강조한다.

아트로이스의 후손이여!
 그토록 내가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오늘의 쫓기를 통해서
 드디어 노력하여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구나. (SE, 81)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오레스트가 모친을 살해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설로스 와 오이리피데스의 작품에는 모친살해의 문제가 부각되는데 소포클레스는 그 점을 전혀 문제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강하게 남기고 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으며, 왜 소포클레스는 오이리피데스와는 달리 구전에 전해 내려오고 아설로스가 구체화한 모친살해의 문제를 주제로 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오레스트를 추격하는 복수의 여신이나 델피 법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묘사도 없다. 따라서 소포클레스의 작품에는 모든 인간사의 행불행을 관장하는 신들의 위력이나 신탁과 같은 예정된 운명이 나타나 있지 않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소포클레스의 비극이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배경은 그리스 궁성이지만, 등장인물들의 비극은 필연적 사건의 자연스러운 인간적 결말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19) "So einfach ist es nicht, und es bedarf schon einiger Überlegungen, warum Sophokles im Unterschied auch zu Euripides die im Mythos vorgegebene und von Aischylos ja gestaltete Problematik des Muttermordes nicht thematisiert hat." Hellmut Flashar, Notizen zur Elektra, 106쪽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 요약	
아가멤논의 가족 관계	아가멤논과 클리템네스트라 사이에 네 자녀, 즉 이피게니에, 엘렉트라, 크리조테미스, 오레스트를 두고 있음.
클리템네스트라의 아가멤논 살해 동기	아가멤논이 이피게니에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극단적 반감. 그녀의 표독한 심품과 에기스트에 대한 애정.
아가멤논 살해시점, 방법과 장소	소포클레스는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함, 예를 들면, 아가멤논이 클리템네스트라와 에기스트에 의해서 미케네 귀향 후 도끼로 살해됨.
오레스트 피검	아가멤논이 살해될 때, 엘렉트라가 오레스트를 피신시켜 스트로피오스에게 그의 양육을 맡김.
오레스트 미케네 귀향 동행인	그의 나이브 하인 (스트로피오스)와 필라데스
오레스트와 엘렉트라 재회 징표	오레스트의 곱슬머리 보다는 아버지와 닮은 그의 모습
오레스트의 복수 계획과 실행	먼저 스트로피오스가 오레스트의 죽음을 알리고, 나중 오레스트와 필라데스가 그의 시신을 태운 재를 가지고 온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궁안으로 들어가 복수가 실행됨
오레스트의 복수 순서	먼저 클리템네스트라가 살해되고, 에기스트는 과거 아가멤논이 살해된 곳에서 살해됨
협력자	스트로피오스, 필라데스, 엘렉트라
엘렉트라의 신분과 역할	엘렉트라라는 공주이며 미혼. 작품의 주인공.
	오레스트가 복수하게끔 하는 자연스런 필연성을 제공 (엘렉트라의 비참한 궁정생활, 모친과 에기스트에 의한 박해). 또 아버지가 살해될 때, 오레스트를 스트로피오스의 집으로 피신시킴.
필라데스의 역할	오레스트의 친구이자 가장 큰 협력자이지만 한 마디 대사도 없음
특징	아일로스의 작품에 나타난 아폴로 신탁, 모친살해죄, 복수의 여신들의 추격, 아크로폴리스 법정 판결 모티브가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 클리템네스트라와 에기스트가 아주 표독한 인물로 묘사됨. 예를 들면 이들은 엘렉트라를 지하감옥으로 보내려는 생각을 하며, 오레스트의 사망 소식에 몹시 기뻐함 그리스 3대 비극작가 가운데 유일하게 엘렉트라와 자매 크리조테미나를 등장시켜서 자매의 대립적 삶의 자세를 부각시킴. 오레스트를 키운 스트로피오스가 오레스트의 복수에 적극 가담

3. 오이리피데스의 「엘렉트라」

오이리피데스의 「엘렉트라」 발표는 기원 전 413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작품의 장소는 미케네 산정에 있는 가난한 농부의 허름한 농가이다. 각 장면은 아침, 낮, 저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다시 개별 장면들이 전개된다. 또한 드라마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그 파격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엘렉트라의 가난한 신분과 그녀의 처녀성을 훼손하지 않는 농부 남편의 고상한 성품에 있다. 이 결혼은 에기스트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에기스트가 후환이 두려워서 엘렉트라를 살해할 결심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클리템네스트라가 적극 만류하자 다시 새로운 궁리를 짜내는데, 그것은 추방된 오레스트의 목에 현상금을 내거는 것과 엘렉트라를 어느 아주 가난한 남자와 혼인시키는 일이었다(EE, 87)²⁰. 그런데 실제 가난한 농부인 그녀의 남편은 원래 귀족 출신이고, 엘렉트라의 왕녀라는 신분을 존중해서 그녀의 처녀성을 훼손하지 않는다²¹.

아침 이야기에서 보면 클리템네스트라가 에기스트의 도움으로 전쟁터에서 귀향한 남편을 암살하였으며, 아가멤논을 교육한 시종이 오레스트를 에기스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포키스 지역에 사는 스트로피오스에게 그의 양육을 맡긴다. 특히 이 이야기의 첫 장면에서 결혼 이후에도 늘 한탄과 슬픔을 지닌 엘렉트라를 안타깝게 느끼는 남편이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던진다.

그대 가장 가련한 여인이여, 그대는 날 위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강제노역에 익숙치 않으나 힘껏 애만 쓸 뿐이구료.
또 나의 좋은 조연도 귀담아듣지 않는구료.(EE, 88)

이러한 남편의 말에 엘렉트라는 남편을 자신의 불행을 지켜주는 좋은 친구이자 그녀를 구원해 주는 조력자라고 응수한다(EE, 7). 아내

20) EE ist Abkürzung 「Elektra」 von Euripides. Euripides, Elektra (Übers. u. erläut. v. Ernst Buschor), München 1957

21) 원래 엘렉트라의 배우자는 아버지 아가멤논이 따로 정해 놓은 바 있으나, 에기스트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가난한 귀족 출신의 농부와 엘렉트라를 혼인시킨 것이다.

의 이런 부드러운 반응을 경험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물길러 내보내고, 자신은 밭으로 간다. 이때 오레스트가 필라데스와 두 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등장한다²²⁾. 오레스트는 아폴로의 신탁을 받고 복수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귀향한 것이다(EE, 89).

인기척이 나자 이들은 몸을 숨긴다. 엘렉트라가 샘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이어서 엘렉트라는 자신이 아가멤논과 클리템네스트라의 딸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엘렉트라이고, 이 도시에서 가장 가련한 여인이며, 그녀의 비참한 생활 및 어머니와 에기스트 손에 살해되어 저승세계로 간 아버지 아가멤논을 그리워하는 긴 탄식을 한다(EE, 90). 이 작품에서 아가멤논의 살해 도구는 소포클레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도끼이다.

이어서 낮의 이야기로 옮겨가고, 합창과 엘렉트라의 서로 주고 받기 대화가 나온다. 합창은 엘렉트라에게 헤라여신 축제에 참석하도록 권유한다. 즉 즐거움과 기쁨의 세계로 그녀를 끌어 들이는데, 이것은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 미케네 소녀들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는 엘렉트라를 다른 세계로 끌어내는 것과 같다. 한편 엘렉트라는 치장하는 것, 화려한 옷과 즐거운 축제무를 거부한다. 헤라축제에 대한 엘렉트라의 거부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헤라 여신은 남편 제우스와 더불어 결혼을 관장하는 신이고, 헤라 여신을 기리는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혼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렉트라의 거부는 그녀의 처녀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그래서 엘렉트라는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신조차도 가장 가련한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치른
옛 희생자에게나 관심이 있을 뿐이지요.(EE, 96)

첫 번째 주요장면에서 엘렉트라와 오레스트의 상봉이 이뤄지는데, 오레스트는 물항아리를 짊은 머리위에 얹고 있는 엘렉트라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는 가난한 집 하녀라고 생각한다(EE, 90). 그런데 그녀와

22) 한명의 하인은 오레스트의 시종이고, 다른 한 명은 필라데스의 시종이다.

마주치게 된 오레스트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오레스트의 심부름으로 엘렉트라를 찾아온 것으로 위장한다. 그러면서 오레스트의 생존소식을 엘렉트라에게 알리고, 그녀는 그 소식에 몹시 반가워한다. 이들의 재회에서 오레스트는 어떻게 아가멤논 암살자들에게 복수할 것인가를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단호하게 그들이 행한 대로 되갚도록 제안한다. 또한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거듭 묻자 그녀는 아버지를 살해할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도끼를 가지고 되갚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다(EE, 102). 그리고 나서 오레스트는 엘렉트라와 가난한 생활 및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처녀성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음도 듣게 된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그녀의 남편이 오레스트의 분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엘렉트라에게 성적 접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자, 엘렉트라는 그것을 교정한다. 오히려 그것은 남편의 고상한 성품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EE, 100). 한편 엘렉트라가 그대로 성처녀로 있다는 것을 클리템네스트라와 에기스트는 전혀 모르고 있다.

밭에서 돌아 온 남편이 낯선 남자들이 왜 이 곳에 왔으며 왜 아내가 그들곁에 있는가 묻자 엘렉트라가 이에 대해서 오레스트가 보낸 사자들이라고 응수한다(EE, 105). 이들은 엘렉트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곳으로 온 것이라고 부언 설명한다. 남편은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낌이 없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오히려 엘렉트라가 손님을 누추한 집안으로 모시는 것을 꺼린다(EE, 107). 한편 오레스트는 그녀 남편의 당당하면서도 품위있는 행동에 감동된다.

높은 신분의 아버지로부터 가련한 아들이 나오고
 가난한 부모로부터 좋은 후손이 나오고
 부유한 사람 집에는 텅빈 머리가 지배하고
 고결한 인품은 가장 허름한 의복에 깃들어있도다!(EE, 106)

두 번째 주요 장면에서 아가멤논을 교육했고, 오레스트를 피신시킨 그 노인이 힘들게 엘렉트라와 가난한 산동네 오두막을 방문한다. 그는 아가멤논의 외로운 무덤가²³⁾에서 제물로 바쳐진 양의 피와 금발 곱슬

머리를 발견하고는 그 소식을 그녀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는 그것을 오레스트의 귀향의 표시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노인의 역할은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 크리조테미스가 오레스트의 귀향을 확신하고 엘렉트라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과 같다.

그 곳 불터에서 막 제물로 바쳐진 검게 그을린 양,
 막 쏟아낸 피
 막 잘라낸 금발 곱슬머리를 보았지.
 애야, 난 놀랐단다.
 이방인만이 아가멤논 묘지에 가까이 닥아갈 용기가 있을텐데
 아마 네 오라비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황량한 묘에 인사를 드린 것이야.(EE, 113)

이에 대해서 엘렉트라는 그것이 오레스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그 머리카락을 오레스트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인은 엘렉트라의 집에 낯선 손님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만나보고자 한다. 마침 그들이 집밖으로 나오던 차 노인과 마주치게 된다. 오레스트가 엘렉트라에게 이 노인이 누구인가를 묻게 되고, 그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신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사이 오레스트를 찬찬히 살펴본 노인은 그가 바로 오레스트임을 알아본다: “아가멤논의 아들, 살아 있는 오레스트로군!”(EE, 115) 그는 오레스트가 어릴 때 노루 사냥할 때 넘어져서 얻은 눈썹 위 상처자국을 통해서 오레스트임을 확인하는데, 이 상처를 엘렉트라도 알아본다.

이 제 3자 노인은 이 작품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²⁴⁾. 즉, 그가 오레스트와 엘렉트라를 재회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레스트로 하여금 왕권을 되찾도록 권유한다(EE, 117). 또 어떻게 에기스트를 살해할 것인지 그 계획도 마련한다. 그것은 헤라 여신 축제 직전에 거행되

23) 아가멤논의 묘는 아무도 찾지 않을 뿐더러 제물도 바쳐지지 않는다. 이 점은 아킬로스와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 어떤 이유에서이건 그의 무덤에 제물이 바쳐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4) 소포클레스의 경우, 오레스트를 동행한 노인이 그를 키운 스트로피오스인데 비해서, 오이리피데스의 경우에는 어느 노인이란 바로 아버지 아가멤논을 가르치고 오레스트의 피신을 도모한 인물이다. 한편 아킬로스의 작품에서는 아예 이와 같은 노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는 요정 축제에 에기스트가 참석하여 숯소를 제물로 받치는데, 이 때를 이용하여 에기스트를 살해하라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 살해 계획은 엘렉트라가 세우고, 그 내용은 엘렉트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려서 그녀를 이 곳으로 유인한 후 암살한다는 것이다. 이 아기 탄생 소식도 노인이 전하도록 엘렉트라가 부탁한다.

시내로 가서 왕비에게
 엘렉트라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전하여 주세요 ...
 그녀가 이 곳으로 오는 것은 확실한 죽음이 될꺼예요. (EE, 121)

그런데 그리스의 결혼에서는 후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간주되었기 때문에 엘렉트라는 바로 이러한 정서를 이용한 것이다. 클리템네스트라 살해 계획이 엘렉트라에 의해서 짜여진다는 점에서 오이리피데스의 엘렉트라는 다른 두 작가의 엘렉트라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제 그들의 복수 계획이 실천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세 번째 주요장면에서는 어떻게 오레스트는 에기스트를 살해했는가를 자세하게 사자가 엘렉트라에게 설명해준다. 오레스트는 자신들을 테살리아 사람들이라고 소개한 후 제우스신전으로 간다고 하자 에기스트가 이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손님의 예우로서 극진하게 대접케 한다. 게다가 먼길에 더럽혀진 몸을 씻도록 목욕물까지 준비시키지만 오레스트는 오는 길에 강에서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그 제안을 사양한다. 이후 에기스트가 요정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오레스트가 뒤에서 그를 살해한다. 그러자 에기스트의 군인들이 오레스트 일행과 싸움을 벌이는데, 그 때 오레스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은 아버지의 복수를 행한 것임을 천명한다.

난 그대들과 이 도시의 적이 아니오.
 가련한 자, 나 오레스트는
 아버지의 암살자에게 벌을 내린 것 뿐이오.
 그대들, 내 아버지의 신하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죽음을 원치 않을 것이오! (EE, 130-131)

이에 모두 다 환호하면서 오레스트를 반긴다. 네 번째 주요장면은 엘렉트라가 오레스트의 승리 소식에 몹시 기뻐하면서 그에게 백성들과 더불어 왕관을 건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늘 승리하는 가문의 후손이여,
트로이를 함락한 승리자의 아들 오레스트여,
이 왕관을 받아서 그대 머리를 장식하시오 ...
필라테스, 늘 협력자, 이 화관을 받으시오.
전쟁중이어서 그대는 그대의 작은 몫도 받은 바가 없었구로.
(EE, 133)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엘렉트라가 필라테스의 공적과 협력을 찬양하는 점이다²⁵⁾. 이러한 묘사는 아셀로스와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 따라서 엘렉트라가 오레스트의 복수와 정의 실현에 있어서 한 차원 위에서 지휘하는 자세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엘렉트라는 에기스트의 시신 앞에서 그의 당연한 죽음의 이유를 든다.

그대가 죄없는 우리를,
오레스트와 나를 고아로 만들었고
우리 어머니에게 구혼하였으며 전장에는 나가지도 않았고
게다가 그리스 군대의 명장이신 아버지를 암살했지.(EE, 134)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합창은 오레스트의 승리를 정의가 이긴 것으로 노래한다: “정의는 정의인 것이야, 정의가 승리를 거두었어.”(EE, 135).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템네스트라의 암살계획이 남아 있다. 클리템네스트라는 아기 출산의 거짓 소식을 듣고, 시골로 마차를 타고 온다. 어머니와 엘렉트라 사이에 주고 받는 말은 서로 가시가 돋혀 있고, 이미 모든 것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이 작품에서 클리템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이 이피게니에를 제물로 바친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애인 카산드라를 집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고, 여자로서

25) 필라테스는 이 작품에서도 한 마디 대사가 없다.

의 질투심이 바로 아가멤논 살해 동기가 된다²⁶⁾.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아실로스보다도 여자의 질투심이 훨씬 심도있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클리템네스트라는 아주 현대적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녀 평등의 권리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메네라오스가 유괴되었다면 그녀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오레스트를 제물로 바쳐야만 했겠는가라고 말한다. 이 말은 실제의 사건에 나타난 성별을 완전히 뒤바꾼 표현이다²⁷⁾.

만약 메네라오스가 납치되었다면
내가 그 제부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오레스트를 살해해야만 할까?
어떻게 네 아버지는 그렇게 분별이 없을 수 있었을까.(EE, 140)

반면 엘렉트라는 일관되게 아버지의 입장과 행동을 옹호한다(EE, 141). 결국 딸과의 격한 논쟁 끝에 클리템네스트라는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녀는 아실로스와 소포클레스의 클리템네스트라보다 훨씬 온화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어머니로 그려지고 있다.

딸아, 과거의 일이다. 뭐?
난 네게 화를 내지 않으며,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못하다.
그런데 넌 바로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여인으로서
아직 목욕도 하지 않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구나.(EE, 142)

그녀는 아기를 보러 엘렉트라의 집안으로 들어오다가 살해당한다. 결국 엘렉트라는 오레스트의 복수에 동업자로서 적극적 관여를 한다. 저녁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레스트와 엘렉트라는 에기스트, 클리템네스트라 순서대로 살해한 후에 죄책감을 느낀다(EE, 149-150). 소포클

26) 반면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는 이피게니에 희생이 주요한 살해 동기이고, 아실로스의 경우에는 오이피데스와 마찬가지로 이피게니에 희생과 카산드라에 대한 사랑이 아가멤논 살해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27) 즉 메네라오스의 아내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 의해서 납치되자 메네라오스가 군사를 일으켰고, 그의 형 아가멤논에게 전투 참여를 요구해서 아가멤논이 출정하게 된다. 그러나 아르테미스의 노여움을 사서 배가 출항할 수 없게 되자 예언자들 통해서 그 연유를 알아보자, 그의 만딸 이피게니에를 제물로 바쳐야만 순풍을 만나 출항할 수 있다고 하자, 결국 아가멤논은 딸을 제물로 바치고 출항하여 승리를 건우고 귀향한 것이다.

레스는 이러한 죄책감 자체를 그의 드라마에서 삭제시켜 버린데 비해서, 오이리피데스는 아설로스의 작품에서 보다도 훨씬 강조해서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오이리피데스는 새롭게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²⁸⁾를 마지막 장면에 등장시켜서 결론을 맺고 있다. 이들은 배가 난파하여 아르고스로 오게 되었으며, 그들의 누나 클리템네스트라의 살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제우스신과 운명의 여신 모이라가 명한 바처럼 비록 오레스트의 복수가 아폴로 신탁에 의해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모친살해 죄로 즉시 아르고를 떠나도록 이른다. 이제 오레스트는 고향을 떠나 복수의 여신들의 추격을 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 아테네 법정에서 그의 죄에 대한 판결이 동수로 나오기는 하지만 아폴로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임으로 예고한다. 또 엘렉트라에게는 필라데스와 결혼하여 그와 함께 그의 고향 포키스로 가도록 명한다(EE, 152-153). 에기스트의 장례는 아르고스 시민들이 이행하고, 클리템네스트라의 시신은 이제 막 트로이에서 귀향한 메네라오스와 헬레나가 건을 것임을 밝힌다. 이에 대해서 엘렉트라는 고향을 떠나는 것과 동생과의 작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지만 결국 오누이가 모두 아버지의 땅 아르고스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나고 있다.

어는 누구도 불의를 행하지 못하며
어는 누구도 파렴치한들과 함께 배를 탈 수는 없는 법이지!
그건 신이 인간들에게 경고한 것이야.(EE, 157)

오누이 추방 이후의 이야기는 오이리피데스가 기원 전 408년에 발표한 『오레스트』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²⁹⁾. 그런데 오이리피데스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엘렉트라의 원래 남편인

28) 이 두 사람은 톨다로스의 아들들로서 클리템네스트라의 형제들이다. 신화에 따르면, 톨다로스와 그의 아내 레다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중 클리템네스트라와 카스토르는 그들 사이의 자녀이고, 헬레나와 폴리데우케스는 백조의 모습으로 가장한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Bernhard Zimmermann, Erläuterungen, 314쪽 참조

29) 즉 작품 『오레스트』는 클리템네스트라가 살해된 6일 후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긴 오레스트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엘렉트라가 그런 오레스트를 돌본다. 오레스트는 군중 집회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아폴로 신의 개입에 의해서 결국 오레스트는 아르카디엔에서 예정된 1년을 체류하고 나서 아테네로 돌아오며, 신들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

농부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오레스트가 에기스트의 손님에 대한 친절을 이용하여 그를 등 뒤에서 살해하고 있는 점, 클리템네스트라와 에기스트의 모습이 다른 두 작가에 비해서 온화한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오이리피데스의 「엘렉트라」 요약	
아가멤논의 가족관계	아가멤논과 클리템네스트라 사이에 세 자녀, 즉 이피게니아, 엘렉트라, 오레스트를 두고 있음.
클리템네스트라와 아가멤논은 살해 동기	아가멤논이 이피게니아를 희생 제물로 삼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카산드라를 사랑한 것 때문에, 즉 여성의 질투심이 살해 동기.
아가멤논은 살해시점, 방법과 장소	소포클레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 아는 이야기로 간주함. 즉 아가멤논의 10년만의 귀향 후 아내와 에기스트에 의해서 욕실에서 도끼로 살해됨.
오레스트 피점	아가멤논을 교육한 신하가 오레스트를 피신시켜 스트로피오스에게 그의 양육을 맡김.
오레스트 미케네 귀향 동행인	필라테스와 두 명의 시중.
오레스트와 엘렉트라 재회징표	오레스트의 곱슬머리와 그의 눈썹위에 난 상처
오누이 재회의 촉매자	오누이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가르친 나이 든 노인이 오레스트를 확실하게 알아본 후 그의 확인에 의해서 오누이 재회가 이루어짐
오레스트의 복수 계획과 실행	한 때 아가멤논을 가르친 나이 든 노인이 에기스트 살해 계획을 세우고, 클리템네스트의 살해 계획은 엘렉트라가 꾸림. 실제 복수는 필라테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레스트에 의해서 이뤄짐
복수 순서	에기스트가 먼저 살해되고, 이어서 클리템네스트라가 살해됨
협력자	엘렉트라, 필라테스, 아가멤논을 교육하고 오레스트를 피신시킨 노인
아폴로신의 신탁 및 모친 살해죄	아폴로의 신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아테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
복수의 여신	모친살해죄로 오누이는 죄책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레스트는 복수의 여신들의 추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
엘렉트라의 신분과 역할	엘렉트라는 가난한 농부 남편의 아내, 나중에 외삼촌들에 의해서 필라테스와 재혼하게 됨. 그녀는 어머니를 시골집으로 유인하고, 적극적으로 오레스트의 복수 실행에 가담.

필라데스의 역할	오레스트의 친구이자 협력자이고 나중 엘렉트라와 남편이 됨
특징	콜리렐네스트라와 에기스트의 성품이 비교적 온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 예를 들면 에기스트가 오레스트 일행을 손님으로서 친절하게 예우를 한다든가, 콜리렐네스트라가 갖 태어난 손주를 보기 위해서 엘렉트라와 가난한 농가 방문등.
	엘렉트라와 가난한 농부 남편의 고결한 인간성이 부각됨. 즉 왕녀라는 엘렉트라와 신분울 존중해서 그녀의 처녀성을 훼손하지 않을 뿐더러 에기스트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얼마간 보호해 준 셈.
	콜리렐네스트라가 남편을 살해한 동기가 여성적 질투심의 발로라고 하는 점은 오늘날 여성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발상은 다른 두 그리스 작가에 비해서 그녀의 살해 동기가 대단히 현대적임.

참고문헌

Aischylos, Die Orestie (übers. v. Oskar Werner mit einer Einführung u. Erläuterungen v. Bernhard Zimmermann, München 1990

Sophokles, Elektra (übers. v. Wolfgang Schadewaldt u. hg. v. Helmut Flashar), Frankfurt/M. 1994

Euripides, Elektra, (übers. u. erläutert v. Ernst Buschor), München 1957

Ruth E. Harder, Die Frauenrollen bei Euripides, Stuttgart 1993

Käth Hamburger, Von Sophokles zu Sartre, Stuttgart 1962.

Ernst Cassirer, Wesen und Wirkung des Symbolbegriffs, Darmstadt 1994

Hrg. v. Manfred Fuhrmann, Terror und Spiel, München 1971

Zusammenfassung

Die vergleichende Analyse des antiken Motivs Elektra in den griechischen Dramen*

Kim, Hi-Youl (Cheju Uni)

Elektra³⁰⁾ ist die einzige Gestalt des antiken Mythos, die in Bearbeitungen aller drei großen griechischen Tragiker auf die Nachwelt gekommen ist, in der 「Orestie」 von Aischylos und den Elektra-Tragödien von Sophokles und Euripides im 5. Jahrhundert vor Christus. Darüber hinaus wurde Elektra eine Hauptfigur in der Weltliteratur mit Hilfe von drei griechischen Tragikern. Diese antike Figur Elektra ist ein Gegenpol des griechischen Idealbildes von Goethe und Winckelmann³¹⁾ und lieber eine nähere Figur Medea³²⁾.

Aischylos und Euripides nennen den Apollons Spruch den Hintergrund der Rache des Orest, und Elektra ist eine

* Die vorliegende Arbeit ist ein Teil der „vergleichenden Analyse des antiken Stoffes Elektra in den griechischen und den heutigen Dramen“.

30) Elektra ist die Tochter des Agamemnon und der Klytämnestra.

31) Vgl. Hi-Youl Kim, Die Rezeption der Antike in der deutschen Klassik und in der Gegenwart. Am Beispiel des Stoffes der Iphigenie. KGG Dokumentationen Bd. 3, Seoul 1995 und Die Forschung des Iphigenienstoffes bei Euripides, Goethe und Hauptmann, Journal of Humanities Vol.2, Cheju 1995

32) Vgl. Hi-Youl Kim, Die Remythisierung des antiken Stoffes Medea in deutschen Dramen,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Comparative Study of World Literature in Korea, Vol.2, Chunbuk 1997, und Journal of Humanities, Vol. 3, Cheju 1997

Mithelferin als Nebenfigur bei Aischylos und als Hauptfigur bei Euripides. Überdies sind die Verfolgung der Erinnyen infolge des Muttermordes und die Verurteilung auf dem Areopag im dritten Teil 「Eumeniden」 des Aischylos und in den beiden Dramen 「Orest」 und 「Elektra」 des Euripides wichtig beschrieben. Im Gegenteil dazu, nennt Sophokles dessen Hintergrund das unmenschliche Palastleben der Elektra, die von der Mutter und dem Aigisthos verfolgt und verwaist wird. Bei ihm ist Elektra ein aktiver Mithelferin bei der Rache des Orest. Außerdem sind die Motive, die die beiden gemeinsam in den oben erwähnten Dramen behandelt haben, bei Sophokles völlig ignoriert.

Wie unterschiedlich haben drei griechische Tragiker die antike, mythische Gestalt Elektra in ihren Dramen personifiziert, zeigt sich in der folgenden Tabelle als Zusammenfassung.

wichtige Motive	Aischylos	Sophokles	Euripides
Geschwister der Elektra	Iphigenie, Orest	Iphigenie. Chrysothemis. Orest	Iphigenie, Orest
Warum ermordete Klytämnestra Agamemnon	Weil er Iphigenie für die Versöhnung mit Arteminis opferte. Weil er Kassandra außer ihr liebte.	Weil er Iphigenie für die Versöhnung mit Arteminis opferte.	Weil er Kassandra außer ihr liebte, nämlich aus ihrer Eifersucht ermordert.
Exil des Orest	Er ist von seiner Mutter (Klytämnestra), die einen freien Spielraum zum Mord ihres Gatten haben wollte, bei Strophios in Phokis ausgefluchtet.	Er ist von seiner Schwester (Elektra), die ihn beim Vätermord schützen wollte, bei Strophios ausgefluchtet.	Er ist von dem Alten, der Agamemnon erzogen hat und beim Vätermord schützen wollte, bei Strophios ausgefluchtet.

Mithelfer bei der Rache des Orest	Pylades, Elektra	Pylades, Elektra, Strophios	Pylades, Elektra, der Alte, der Erzieher des Agamemnon und Retter des Orest war
Reihe der Rache	Aigisthos und danach Klytämnestra	Klytämnestra und danach Aigisthos	Aigisthos und danach Klytämnestra
Status und Rolle der Elektra	Königstochter, ledig, Nebelfigur	Königstochter, ledig, Hauptfigur	verheiratet mit dem armen Bauer und später Pylades wieder heiratet, Hauptfigur
Apollons Spruch	Wenn Orest den Apollons Spruch nicht durchführen würde, muß er streng bestraft werden.	Der Spruch spielt keine Rolle.	Orest rächt nach dem Apollons Spruch.
Schuld an Muttermord	Wegen des Muttermordes steht Orest vor dem Gericht in Akropolis, aber er ist frei verurteilt.	Die Schuld an Muttermord der Elektra und des Orest sind gar keine Rede.	Die Geschwister haben Reue und Schuldgefühl an Muttermord.
Verfolgung der Erinnyen	Die Rachegötter verfolgen Orest.	Sie erscheinen gar nicht.	Die Rachegötter werden Orest verfolgen.
Merkmale des Werks	Die Rolle der Cassandra als Wahrsagerin ist besonders unterstrichen.	Klytämnestra und Aigisthos sind besonders als negative Figuren angesehen.	Sie sind als leicht negative Figuren angesehen.
	Der Urteilsprozeß auf dem Aeropag wird demokratisch wie heute durchgeführt	Die Gegenstellung der Elektra und der Chrysothemis ist verdeutlicht.	Die Mentalität des Gatten der Elektra ist edel und mit der großer Gesinnung beschrieben.
Tabellarische Zusammenfassung			